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장6절에는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병행구절로 열왕기상 3장4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일천 번제 헌금'이나 '일천 새벽 기도'와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일 동안 정해진 헌금을 한다거나 천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것같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 헌금을 드리고 일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현상들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한 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무슨 상관입니까?' '어찌되었든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무속 신앙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발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따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고 좋은 것을 받아들여 '나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따라 해야지'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방 신들의 존재 자체가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들을 섬길 때 기본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달래기 위한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무언가를 바치지 않으면 그 신들에게 화를 당할 것이라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의 화를 잠재우고 또한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복을 기대하며 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그들보다 앞에 가셔서 홍해를 건너셨으며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장서 가셨습니다. 또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셔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대상29:14)"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일천 번제 헌금'이나 '일천 새벽 기도'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일천 번제 헌금'이나 '일천 새벽 기도'등의 동기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헌금이나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동기는 '기복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복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복을 바라고 무언가를 신에게 바치는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즉 부와 건강과 명예와 지위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라며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앞서 말씀 드린 한국인들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는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어떠한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일까요? 그것은 천일 동안 드린 번제가 아니라 한 번에 천 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대하1:6)." 그러면 열왕기상 3장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혼동하도록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열왕기상에도 명확하

게 천일 동안 드린 일천 번제가 아니라 천 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천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천 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밤"이 "그날 밤" 즉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그 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말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 그 의미가 희미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천 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말 성경들 중에서도 새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은 "그날 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혼동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 동안 이와 같은 사실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도 계속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 헌금이든 일천 새벽 기도든 무엇이든지 드리고자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는 반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속 신앙이나 기복 신앙적인 것으로 드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따라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어있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헌금이 나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 하실 예수님을 찾고 믿어

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회개나 구원의 문제 보다는 내가 일천 번제 헌금이나 일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것이 자칫 자신의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헌금이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헌금이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고(대상29:9)" 솔로몬도 왕이 된 후 먼저 하나님께 일천 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대하1:6). 고린도후서 9장7절 말씀에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앞으로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린 헌금의 양이나 횟수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분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두번째는 일천 번제 헌금이나 천일 새벽 기도와 같은 것들이 나의 의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하더라도 나의 의가 되지 않을뿐더러 내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에게 헌금이나 헌신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인간 중심에서 말씀을 읽게 되면 이와 같은 오류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